# 창종 66주년 총화종 "생활불교로 나아가자"

**4월 17일 실상사서 기념법회**
**혜각 스님 중장기 계획 발표**
**중앙종회의장 법만 스님 취임**

유재상 충청지사장


총화종은 4월 17일 영동 실상사 대적광전에서 창종 6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종 66주년을 맞은 대한불교총화종(종정 혜각 스님)이 생활불교 구현을 위해 종단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총화종(종정 혜각 스님)은 4월 17일 충북 영동 실상사 대적광전에서 '창종 6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화종 종정 혜각 스님을 비롯해 전 부종정 남은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만 스님과 전국에서 참석한 종도 스님들, 영동사암연합회장 종림 스님(황룡사 주지)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혜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총화종은 이제 생활불교, 현대불교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비와 평화, 수행과 보시의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법문에서는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공양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요, 생사는 무상 속에서 자비의 진리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설했다.

교육원장 본원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대로 이 시대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수행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자비와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실천하는 불교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3월 26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제19대 중앙종회의장 법만 스님이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법만 스님은 "선 자비 명상과 생활불교의 실천이 현대불교의 핵심 과제"라며 "종단의 전법과 교육·행정이 이 가치에 부합하도록 중앙종회가 중심을 잡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총지종은 이날 종단의 미래 비전도 발표했다. 혜각 스님은 '신심으로 새 역사 창조'라는 기조 아래 △생활불교 정착 △선 자비 명상 수행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의 종단 운영 △지역사회와 약자를 위한 자비실천운동 확대 등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총화종은 1960년 4월 15일, 초대 종정 추광 최득연 스님과 초대 총무원장 법사 신종원 스님이 창종했다. 당시에는 '화동'이라는 불교 단체로 불렸다. 이후 1969년 12월 30일 제3대 종정 서로 변설호 스님과 제3대 총무원장 금담 이장호 스님의 주도로 명칭을 '대한불교총화종'으로 변경했다. 1987년 불교재산관리법 폐지로 법적 지위를 상실했으나, 2023년 제93차 중앙종회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결의하고 2024년 법인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회복했다. 현재는 전국에 878개 소속 사찰과 1080여 명의 소속 승려가 있으며 자비행과 사회 포교, 수행과 실천 중심의 생활불교를 이어가고 있다.

# 쌍계사, 韓차맥 잇는 '차문화대축전' 성료

**4월 18~20일 경내 일원서**
**茶대중화 프로그램 선보여**


하동 쌍계사는 4월 18일 경내 괘불전 앞에서 '2025년 차문화대축전' 개막식과 '108헌다례'를 봉행했다.

진감 국사로부터 내려온 한국 전통 다맥을 계승하고 차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축제가 열렸다.

하동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4월 18~20일 경내에서 '2025년 차문화대축전'을 개최했다. 18일 괘불전 앞에서 봉행된 개막식과 '108헌다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선다회 이사장 영담 스님,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지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다도는 단순한 전통문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히고 정서와 인성을 함양하는 수행"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과 신도들이 차 향기 가득한 치유와 평화의 시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담 스님은 "쌍계사는 진감 국사와 초의 선사로 이어지는 한국 차맥의 뿌리가 살아 있는 도량"이라며 "25년 전부터 복원해 온 다맥 전통이 지역과 세계를 잇는 문화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차는 수행자들이 감로다(甘露茶)라 부르며 마셨던 깨달음의 음료이며, 선(禪)과 하나 되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길"이라며 "차는 청정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게 하는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 쌍계사의 다맥 전통과 차문화대축전이 종단과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 속에 더욱 널리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23년 세계차문화엑스포를 계기로 시작된 축전이 해마다 풍성해지며 경남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이 축제를 통해 불교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연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전은 △17일 차나무 시배지에서의 개원채다 △18일 괘불전 및 팔영루에서의 다도의례 △19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茶-디카시(詩)로 만나다' △20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K-어울림 축제'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라·고려·조선시대의 전통 다도 시연과 두리차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한국전쟁 전소 '용연사 대웅전' 복원

**4월 19일 낙성법회 봉행**



한국전쟁 당시 전화(戰火)로 대웅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던 강릉 용연사(주지 설암 스님)가 대웅전 복원불사를 회향했다.

강릉 용연사는 4월 19일 대웅전 낙성법회 및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하고 원형을 복원한 대웅전을 세상에 선보였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중창불사의 어려움을 딛고 이뤄낸 설암 스님의 원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오늘은 불국토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참회와 서원의 도량이자 자비와 문화가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주지 설암 스님은 "5년간의 복원불사에 정성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용연사가 수행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 산청 덕산사, 대적광전 낙성식

**4월 19일 1000명 동참**



산청 덕산사(주지 동조 스님)는 4월 19일 대적광전 낙성식을 봉행했다.〈사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법회에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축하했다.

주지 동조 스님은 인사말에서 "2019년 주지 소임을 맡은 이래 문화유산 시굴조사, 기공식, 상량식을 거쳐 오늘 대적광전 완공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 모든 과정은 사부대중의 정성과 원력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대적광전 낙성으로 기존 비로전에 봉안돼 있던 국보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적광전으로 이운·봉안됐다.

이와 함께 신도들이 정성껏 사경한 〈금강경〉 사경본 1000여 권도 함께 봉안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정광학원 이사장 무공 스님 취임

**4월 21일 취임식 개최**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4월 21일 정광고등학교 룸비니관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념식 및 정광학원 제17대 이사장 무공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취임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수좌 일수 스님, 나주 불회사 회주 정연 스님,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정광학원 이사 만당·대진·원철·중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사장 무공 스님은 취임사에서 "정광학원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 지역 인재를 길러낸 도량"이라며 "교육은 수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불성을 존중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공 스님은 취임식에 앞서 각 교실을 돌며 정광중·고등학교 전교생 1700명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는 금일봉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